

배포일시	2020. 5. 14.(목) 14:00 (총 3매)	보도시점	2020. 5. 15.(금) 10:00
담당부서	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	담당자	과장 김용상 연구사 석미경
		전화번호	02-2181-0861 02-2181-0866

2019년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'인천, 세종, 대구' 순

- 기상청, 우리나라 낙뢰 정보를 담은 「2019 낙뢰 연보」 발간
- 2019년 총 6만 6천회로 평년보다 적은 낙뢰 발생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2019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「2019 낙뢰 연보」를 발간하였다.

- 「2019 낙뢰 연보」는 기상청 낙뢰관측망*으로부터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△월별 시·도별 △시·군·구별 낙뢰 발생 횟수 △단위 면적(km²)당 횟수 △낙뢰 횟수 공간 분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* 기상청은 1987년 낙뢰 관측을 시작으로, 현재 전국 21개소의 낙뢰관측망을 운영 중이다.

□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약 6만 6천회 낙뢰가 관측되었으며,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2.7만 회와 2018년 약 11.8만 회보다 적게 나타났다.

- 특히, 2019년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17,671회(약27%)가 관측되었으며, 여름철(6월~8월)에 약 63%가 관측되었는데,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낙뢰가 발생하는 기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.
- 지역적으로 단위 면적당 연간 낙뢰 횟수는 인천광역시(1.59회/km²), 세종특별자치시(1.45회/km²), 대구광역시(1.06회/km²)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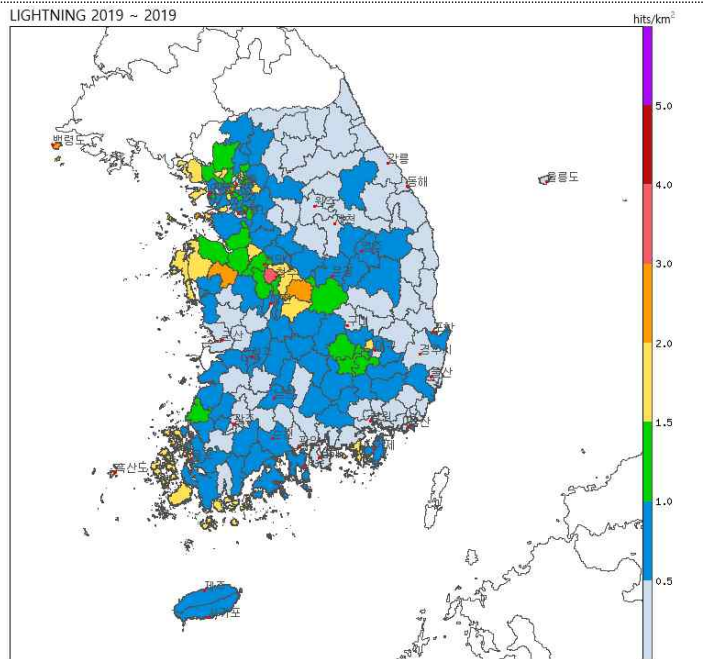
- 「2019 낙뢰 연보」는 기상청 행정 누리집(<http://kma.go.kr>)
 - ▶ 지식과배움 ▶ 간행물 ▶ 낙뢰연보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, 전자 파일(PDF)형태로 제공된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2019 낙뢰 연보가 일반 국민과 국가기관, 방재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, 우리나라 낙뢰 재해경감대책 마련 및 피해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: 「2019 낙뢰 연보」 발간 참고자료



< 「2019년 낙뢰연보」 표지 >



< 2019년 행정구역별 낙뢰(대지방전) 분포도 >